

‘K3리그 우승’ 화성FC의 그림자

주먹구구식 운영 드러나 화성시의회 교육위 지적

올해 한국 축구 K3리그에서 우승하며 챔피언에 오른 재단법인 화성FC(구 단주 정명근 화성시장)의 주먹구구식 운영과 소관 부서의 관리·감독 소홀이 도마 위에 올랐다. 논리적으로 드러난 잘못에도 공색한 변명으로 일관한 화성FC 대표이사 및 사무국장 태도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커지는 지적이다.

화성시의회 제3상임위 회의실에서 21일 오후 개최된 교육복지위원회의의 여가문화교육국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화성FC의 허술한 단장 선임 정관개정 및 그들만의 구단 운영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김미영 의원은 "과감기관 제 규정 확인 중 화성FC 정관개정에서 단장 임무의 추가 상태를 확인했다. 화성FC 설립및운영에대한조례와 화성FC 정관 제5조는 단장이 임원에 포함되지 않고 제6조는 임원으로 포함하는 등 조례와 정관이 충돌한다. 화성FC 이사회 운영 규정에는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돼 있고... 부시장의 정확한 규정이 필요하

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정관 개정은 주무관청 및 광역 지자체의 승인이 필요해 소관 부서의 승인 과정이 있었을 텐데 짚어내지 못했다. 출자기관인 화성시는 지도·감독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난 7월 선임된 이기원 대표이사는 '재단법인 임원 아닌 구단 임원으로 단장을 정의하려 한 것으로 안다' '재단법인 임원은 이사회를 가지고 임원을 하는 거고 단장은 이사회 의결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화성FC의 단장 임원'이라는 등 재단법인과 화성FC를 별개의 조직으로 여기는 듯한 답변을 이어갔다.

이해남 위원장은 단장이라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명확한 규정 없이 너무 급히 만든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화성FC의 돌발적인 행위를 꼬집었다. 단장 자리는 만들었는데 법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는 없고 대표이사와의 업무분장 등이 애매모호하니 시 집행부에서 선을 그어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선영 의원은 화성FC 관련 규정·정관·조례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진단했다. 대표이사는 급여를 안 받고 단장은 8000여 만원에 가까운 연봉을 받으나 책임은 없으니 뭔가 잘못돼 있

지 않느냐고 물었다. 아울러 화성FC 응원가 여부를 묻고 "혼자 가는 것은 빨리 갈 수 있으나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다. 구단에서 K2리그로 가고 해서 안 된다. 응원조차 낮설어 하는 시민들 입에서 K2 말이 나오도록 응원가도 만들고 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용은 의원은 화성FC 산하 유스팀 감독·코치에 대한 인건비 및 대표이사 운전직으로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학부형과의 커넥션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엄연하고 운전직 채용의 경우, 아무 근거 없이 구단 운영상 필요해 임용한다는 사무국장의 말이 우려가 짙어 불쾌한 편법 채용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전정민 화성FC 사무국장은 감독·코치 비용을 학부형 지원과 대회출전비·용품비·전지훈련비로 지급한다는 설명과 함께 운전직은 장거리의 경우 대표이사가 직접 운전하기 힘들어 보조인력으로 '홍경기 운영비'에서 급여를 지출한다고 설명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라' 등급을 받은 최중욱 전 대표이사 겸 단장이 공개모집을 통해 다시 8000여 만원 연봉의 단장으로 취임한데 대해서도 화성FC 대표이

사는 본인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 의원이 "임원이 아니면 공개채용을 하는 게 맞는 거고 지금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맞다고 생각하냐"는 말에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다.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자신은 경영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고 단장은 축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라 별 하자가 없다고 생각한다

는 것이다. 이기원 화성FC 대표이사는 "경영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쪽에 좀 부족했지 않았나 생각하지만 선수단 스카우트나 운영 이런 것은 노하우가 많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미영 의원은 "쉽게 설명하자면 한 기업체에서 경영 못하는 사람을 새로운 대표가 다시 채용한 거하고 똑 같다. 어떤 점이 탁월해서 다시 선임한 건지 의원들로서는 참 궁금하다. 다만 대표이사께서 문제없다 하시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화성FC 논란의 당사자인 최중욱 단장은 전남 목포에서의 선수 스카우트를 이유로 시의회 교육복지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했다.

강송수 기자



의회 단신

“관용차 불법개조 목인 말아야”

김미연 인천서구의회 의원

김미연(국민의힘, 다 선거구) 인천서구의회 의원은 21일 진행된 1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동안 목인해은 관용차 불법개조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차량에 경광등·방향표시등·사이렌 등을 부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차량 구조 변경 신청을 한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서구에 등록된 관용 트럭 중 대다수가 이를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개조 후 운행 중이다.

김 의원은 이를 지적하며 “주민의 불법 차량을 단속하는 관공서에서 압입리에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는 절대 묵인할 수 없다. 뒤에서 불법을 저지르면서 구민을 기만하는 잘못된 관행은 당장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구청 자료에 따르면 서구에 등록된 1톤 이상 관용차량은 53대이며 대부분의 차량에 불법으로 경광등과 사이렌이 부착돼 있다. 서구청 각 부서와 23개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시설공단 등에서 현재도 아무 제재 없이 운행 중이다.

안중삼 기자



동두천시의회는 21일 의원회의실에서 '11월 중 동두천시의회 의원정담회'를 개최했다. (사진=동두천시의회)

동두천시의회 의원정담회 열려

총 28개 안전 관련 논의

동두천시의회는 21일 의원회의실에서 '11월 중 동두천시의회 의원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4건까지 총 28개 안전에 대해 의회가 제안 설명을 듣고 집행부와 의견을 나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원 대표 발의 안전조례 △'동두천시의회 의원 행정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인범

의원)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숙 의원) △'동두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한국자유총연맹 동두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경 의원)이 논의됐다. 집행부에서는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안전을 제출해 의회와 집행부 간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성대 기자

“경기도 농정예산 사실상 삭감”

김성남 도의회 농정위원장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포천2) 위원장은 22일 열린 농정해양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내 예산 관련, 전체적으로 도의 예산이 2조1800억원 증액했음에도 농업예산은 상대적으로 삭감 편성됐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김성남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열린 소관 실·국 및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 앞서 내년도 예산에서도 농업예산 5% 목표에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경기도 전체적으로 2조1800억원이 늘었는데도 불

구하고 우리 농정 예산은 불과 65억 원밖에 늘지 않았다”면서 “이는 퍼센트만 보면 올해 3.7%에서 3.3%로 도리어 감액된 것”이라고 설명한 뒤 일부 사업을 꼭 추진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마구잡이로 예산을 깎은 부분에 대해 집행부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어떤 것이 우리 농업인을 위하고 어떤 사업이 농업인을 위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자르 기식이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있을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김민창 기자

‘지오-굿즈 개발 연구’ 용역보고회 개최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백령·대청도 가치 향상을

인천시의회에서 백령·대청도의 국가지질공원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질유산 보존을 위한 인천섬발전연구회'는 21일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추진을 위한 백령·대청·소청도의 지질유산과 특산물 활용 방안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지오-굿즈(Geo-Goods)'는 지질학적 특성과 자연유산을 기반으로 한 상품으로 해당 지역의 독특한 지질유산과 특산물을 활용해 제작된다.

이러한 상품은 지역의 자연·문화적 가치를 반영하며,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기념품을 제공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지질공원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은 독특한 자연유산 및 아름다운 경치를 지니고 있어 지난 2019년 우리나라에서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질유산 보존을 위한 인천섬발전연구회'는 21일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추진을 위한 백령·대청·소청도의 지질유산과 특산물을 활용한 지오-굿즈(Geo-Goods) 개발 방안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사진=인천시의회)

11번째로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됐다.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백령·대청·소청도를 방문하는 사람의 수가 많이 늘었으나 감동을 잊지 않기 위해 기념품을 사고 싶어도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을 기념할 만한 굿즈(Goods)가 없어 지역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백령·대청·소청도를 포함하는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추진과 지오-굿즈(Geo-Goods)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진행했다.

최종보고회에는 신영희 의원을 비롯해 이봉락·김종배·이명규·장성

숙·유승분·박용철·석정규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인천섬유산연구소의 김기룡 박사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김기룡 박사는 백령·대청·소청도의 '지오-굿즈(Geo-Goods)'에 사용할 마크와 로고 개발 설명과 함께 다양한 지오-굿즈(Geo-Goods)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우선 백령도는 두무진을 활용한 암석처럼 층층이 다른 색깔의 속 재료를 넣어 만든 케이크인 '두무진 케이크', 두무진 사진을 인쇄한 '마우스패드', 감람암포획 현무암의 특징을 반영한 '감람암빵과 과자', 풍동해안의 특징을 활용한 풍동 모양 '초코볼과 견과류' 등을 제안했다.

안중삼 기자

또한 남포리 습곡을 이용한 카푸치노에는 습곡 무늬를 투명한 '남포리 습곡 커피', 용트림 바위를 형상화한 '파배기 도넛과 과자', 콘 아이스크림, 백고구마 식혜, 막걸리, 점박이 물범을 형상화한 '쿠션' 등도 있었다.

이어 대청도는 나이트 바위를 형상화한 '밤비발침, 홍어빵, 홍어연, 나이트 빵, 대청부채 식물을 이용한 '부채와 예코백, 머리띠' 등을 선보였다.

소청도는 우리나라 최초의 생명체인 남조류의 화석을 인쇄한 '명함, 손거울, 병따개', 홍합 모양의 '빵' 등 모두 22종의 지오-굿즈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안중삼 기자

▶ 차별화된 오프라인 광고

LED전광판 / 와이드 / 지하철 / 버스

- 도심 한복판 최적의 위치에 성공적인 마케팅 기획
- 고품질의 영상광고로 브랜드 이미지 구축
- 와이드 조명, 스크린 도어, 액자형 광고로 브랜드 인지도 향상
- 다양한 옥외광고로 귀사의 성공적인 홍보 기대

수도권 전역 광고주와 소비자를 이어드립니다.

일간경기영상사업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37, 1174~1150호(청천동, 제이타워3차)
TEL : 032)508-0006 / FAX : 032)293-5030